

아동과 함께하는 '빨주노초파남보'

08 March, 2016 | 김정선 기자



▲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색을 주제로 한 어린이 대상 교육 전시 '빨주노초파남보'가 7월 24일까지 이어진다.

어린이갤러리는 어렵게만 여겨지는 현대미술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.

박미나 작가가 전시를 위해 제작한 벽화를 비롯해 설치, 조각, 평면작업 등 13점이 소개된다.